지역 소식통

부안농협 보리수매용 톤백 전달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31일 영농자재센터에서 230여 조합원들에게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부안 농협은 지난해에도 보리약정 수매 270농가에 계약재배면적 740ha, 최저보장가격 38,000원(40kg 겉보리 1등급 기준)으로 계약. 보리 수확철을 맞아 계약재배 농가에 톤 백(800kg) 4,500매 42,500,000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 농협은 정부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보리차를 생산하는 동서식품과 2010년도부터 500톤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하여 신뢰를 얻고 그 결과 현재까지 연간 소요물량 4,500톤 전량을 전북으로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부안 농협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 계약물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아 잉여물량이 남을 예정이나 동서식품과 협의하여 잉여물량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제안 접수창구 운영

고창군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창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고창군에서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총 15개의 접수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은 전라북도에 보내진 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돼 중요 정책 반영 건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시점에 반영되며 민원 등 즉시 해결이 필요한 내용들은 관련 기관에서 처리된 후 제안자에게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인수위원회에 고창군민들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으로 새 정부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민제안 접수창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갯벌생태관광 명소 '눈 앞'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공사 올해 말 준공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권 개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고창군 심원면 고전·만돌·두어·월산·하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갯벌탐방로 15.3km, 교량 2개소, 탐방로 쉼터 5개소, 자전거 쉼터 2개소, 주차장 273면, 야영장 41면과 조경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착공해 그동안 지반 자연침하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 해결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70%에 이른다.

그동안 갯벌탐방로 아스콘 포장, 복원지역 흙콘크리트 포장, 안전난간 설치와 교량 2개소 설치,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성, 야영장 데크설치, 조경 식재 등이 완료됐으며 추가적으로 해송군락지의 숲길탐방로 조성, 옛 소금운반길 포장, 방파제 경관이미지 조성, 갯벌놀이터 및 뻘가든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 이용요금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고창군에 명품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간과 갯벌이 공존하는 서해안권 대표 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참뽕오디 대대적 홍보 나서

인지도 향상 · 소비 확대 위해 대도시 · 주요 관광지서 시식회 등 추진

'신이 내린 나무열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안 참뽕오디가 올 봄 기상여건이 양호해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이 부안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참뽕오디의 전국적인지도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대도시와 대형교회,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부안 참뽕오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시식회 등 홍보행사를 6월 말까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디는 혈당 강하, 노화억제, 고혈압 억제, 불포화지방산 및 라스베라톨 다량 함유 등 다양한 효능이 있고 다이어트와 변비개선 효과도 있으며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어 한방에서 '선약 중 제일 귀중한 선약으로 하늘이 준 신목'으로 칭해 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생산된 오디는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게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고 남부안농협, 하서농협의 오디수매와 홈쇼핑, 수도권 하나로마트 판촉행사 추진 등 부안 참뽕오디의 소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매결연도시, 대도시, 전주한옥마을, 주요 관광지 등에서 부안 참뽕오디 홍보와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가뭄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현재 평균 강수량(180.2mm)이 평년(306.3mm)의 58% 수준에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4%로 평년(73.3%)의 74%를 기록하며, 가뭄위기관리 기준 상'주의단계'에 접어들면서 '가뭄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군은 가뭄대책 추진 상황실을 관계부서 5개 반(총괄상황-농업분야-상수도분야-용수공급분야-홍보지원분야 이상 대책반)으로 편성 △가뭄 상황의 파악·분석(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책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가뭄지역 비상용수 공급 및 인력기술 장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가뭄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현재의 가뭄상황이 이어질 경우 모내기는 물론 밭작물과 과수 재배에 피해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가뭄대책용 장비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용수 및 저수지 물 절약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읍·면 별 철저한 가뭄대비용 장비 점검으로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6월 계절 농산물예약 판매

정읍 단풍미인쇼핑몰이 6월 계절 농산물인 베리류(오디, 복분자, 블루베리)와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예약판매 한다.

베리류는 오디, 그리고 블루베리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복분자는 6월 15일까지 예약주문을 받아 농가별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오디와 복분자의 경우 산지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배달, 최고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증한다.

또 단풍미인 수박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에 출하되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다. 일반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검은 씨가 없어 식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예약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8kg 이상인 상품을 선별 수확하여 6월 12일에 일괄배송 된다.

단풍쇼핑몰 관계자는 "여름 계절 농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신선도와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단풍미인쇼핑몰에서는 우체국 안전 배송 시스템을 적용 산지의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http://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을 이용하면 된다.

전 상품 우체국 택배 무료 배송과 회원 가입 구매 고객에게 판매금액의 2%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돌발해충 공동방제 총력

정읍시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산외면 종산리와 호남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산림에서 대대적인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이번 방제는 같은 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시는 "전북 방제기간(5월 20일~6월 2일) 에 맞춰 공동방제에 나섰다"며 "이 시기는 해충이 알에서 부화하는 기간인데다 지난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활동을 펼침으로써 방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갈색날개매미충은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8㎜ 정도로 갈색을 띄고 있다.

또 미국선녀벌레는 노린재목 선녀벌레과의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5㎜ 정도로 흰색을 띈다.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연 1회 발생한다.

나뭇가지 속에 알로 월동하며, 5월 중순경 부화하여 70~80일 후 성충으로 우화한다. 사과와 배, 단감, 고추, 단풍나무 등 농작물과 나무줄기의 습기를 빨아 들여 성장을 방해한다. 또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돌발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중순경 알에서 부화한 약충을 적기에 전용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읍면동 이장회의와 새해 영농교육 시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돌발해충 적기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용량이 2020년이면 포화되는 한편 친 자연적인 생태환경 조성과 환경부 정책방향인 쓰레기매립 제로화에 맞춰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소각로 설치사업은 2019년 까지 총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1일 22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5년 폐기물 소각시설 구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착공해 2019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